

學校保健教育의 重要性和 그 改善을 爲한 提言

朴 亨 鐘

仁濟大學校 副總長 醫博

1. 우리나라 靑少年은 健康한가?

오늘날 우리 社會가 안고 있는 問題는 多樣하다. 급격한 近代化에 따른 社會 經濟的 變化는 우리의 生活周邊에 여러가지 變化를 가져오고 있다. 그 중에 어떤 것은 바람직스러운 것인 반면 어떤 것은 우리의 우려와 걱정을 가져오는 경우도 많다. 우리나라의 앞날을 위하여 걱정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제가 많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靑少年들의 健康問題를 빼 놓을 수가 없다. 우리들의 어린이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좀 더 그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살핌을 받아야 하고 보호받아야 한다. 入試準備라는 名分아래 그들의 健康問題는 우리 社會에서 완전히 망각된 채 방치되어지는 듯한 생각이 든다.

試驗工夫로 인한 장기적인 수면부족, 불규칙한 食生活로 오는 영양부족, 주위로 부터의 지속적인 스트레스, 잠을 깨기 위한 興奮劑의 남용 무방비적 性文化의 범람으로 인한 유혹, 담배와 술 나아가서는 마약복용문제까지도 제기되는 靑少年問題를 감안할 때 무엇인가 급히 손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문제들이 어느 일부의 사람들의 힘으로 하루 이틀사이에 개선될 일은 결코 아니며 적어도 장기적인 계획밑에 우리 社會의 각계 각층의 종합된 노력이 요구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들 靑少年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學校

教育의 역할만큼 중요한 것은 없을 것이다. 學校教育이 올바르게 이루어질 때 靑少年들은 오늘을 健全하게 살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장차 그들이 主人이 될 우리 社會의 健全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學校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의 重要性을 強調하고자 함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 온다. 우리 靑少年은 健康하게 자라고 있는가? 하는 질문에 우리는 서슴치않고 “아니오”로 답변한다. 왜? 아직도 우리나라 어린이들은 많은 不健康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많은 部分이 健康에 대한 지식의 결여와 알면서도 健康한 생활습관을 지키지 못하는데 기인한다. 健康에 관한 學校教育의 不足은 결과적으로 그들이 成人이 될때까지도 不健康한 社會人으로 만든다. 오늘날 그들의 주변에는 그들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이 이들의 실패를 알고 극복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와 슬기를 넣어 줄 수 있는 것이 곧 學校에서의 保健教育인 것이다.

2. 學校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나라 教育法에 明示된 바에 의하면 “教育은 弘益人間的 理念아래 모든 國民으로 하여금 人格을 완성하고 自由的 生活능력과 公民으로서의 資質을 具有하게 하여 民主國家 發展에 봉사하여 人類共榮

□ 學校保健教育의 重要性和 그 改善을 爲한 提言

의 理想實現에 기여하게 함을 目的으로 하며”(第1條), 이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는 “身體의 健全的 발육과 유지에 필요한 지식과 습성을 기르며 아울러 堅忍不拔의 氣魄을 가지게 한다.”(第2條 1項)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初·中·高等學校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의 실시현황을 보면 文敎部 教科編成計劃에 따라 학년별로 각 교과목내에 포함되어 분야별 학습형태로 이루어지는 正規保健教育和 각 학교에 있어서 學校長이나 保健擔當 실무자의 관심과 열성에 따라 학교 독자적으로 계획 시행되는 非正規 保健教育의 형태로 나누어지고 있다.

韓國人口保健研究院이 1988년에 실시한 學校保健教育改善에 관한 研究에 의하면 우리나라 初·中·高等學校에서 수업되는 教科目を 통하여 상당한 시간이 保健教育內容을 위하여 활용되고 있음을 본다. 즉 國民學校의 경우 “우리들은 1학년” “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도덕” “사회” “자연” “체육” 등 7개 과목에 保健教育內容이 포함되어 있으며 中學校의 경우는 “社會” “科學” “體育” “家政” 등 13個 教科目에, 高等學校의 경우는 “社會” “數學” “科學” “體育” 등을 포함하는 14個 科目에 나누어 교수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 各級 學校에서는 保健에 관한 內容이 各 科目에 널리 펼쳐 있어서 各 담당교사에 의하여 가르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保健分野에 關心을 가지는 사람들의 一部에 있어서 現行 保健教育의 效果에 대하여 疑問을 갖고 있으며 보다 그 改善의 余地가 있다고 믿고 있다. 그 主된 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 1) 우리나라의 各급 教育은 소위 入試爲主의 경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入試科目에 포함되지 않은 保健教育에 대하여 學校나 學生 모두가 無關心할 수 밖에 없음은 당연한 것이다.
- 2) 保健教育에 관한 內容이 여러 關聯科目에 분산되어 있으며 各 科目마다 독자적 계획에 의하

여 教科書가 집필되어 各 科目에 분산되어 있는 保健教育內容間 연관성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保健教育이 體系의 으로 가리켜지지 못하며 保健教育 目標成就를 위한 一貫性있는 교수가 불가능하다.

- 3) 各 教科書의 內容이 주로 지식습득을 위하여 서술식, 암기식으로 되어 있어서 各 保健에 대한 태도 및 행동에 바람직한 變化를 가져와야 한다는 保健教育의 元來의 目的을 달성하기가 어렵다.
- 4)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학교보건교육은 여러 과목에 分散되어 있어서 자연히 大部分의 教師들이 學生들에게 자기가 맡은 과목을 가르치면서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保健教育도 어느 教科目과 같이 전문적 지식과 훈련을 받아야 할 수 있지 상식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學校에는 保健教育을 제대로 실시할 수 있는 知識과 기량을 겸비한 교사가 不足한 實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保健教育을 제대로 實施할 수 있는 教師를 充分히 확보하기 前까지는 保健教育이 제대로 안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5) 保健教育은 다른 어떤 科目에서 보다 교육시에 시청각교육자료가 필요하게 되어 있다. 왜냐하면 구두의 언어만으로는 가르쳐야 할 내용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에게 충분히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몇몇 保健醫療關係 機關(예 : 대한적십자사 보건혈액부, 대한가족계획협회 홍보부 등)에서 만들어 낸 보건교육시청각자료가 있기는 하나 모든 학교에서 사용할 만큼 量的의 로나 質的의 로나 충분하지는 못한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시청각자료가 태부족한 상태에서는 學校保健教育이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것이다.

6) 學校保健教育에 關한 國家政策을 立案하거나 決定하는 문교부 당국이나 이를 현장에서 직접 實施할 책임이 있는 學校當局이 學校保健教育의 重要性이나 必要性에 對한 인식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다. 그 단적인 예로 現在 문교부에는 學校保健教育을 담당하는 부서가 “係”수준에 머물러 있고 一線 學校에는 學校保健教育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양호교사가 法定數에 훨씬 미치지 못한 點을 들 수 있겠다. 文教部 當國者 및 學校 當局者의 학교보 건교육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전환되지 않는 한 현재의 학교보 건교육은 결코 더 앞으로 進진 하여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3. 學校保健教育이 왜 必要한가?

건강은 인간이 社會的으로나 經濟的으로나 건전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必要로 하는 基本的 要求(Basic needs) 중의 하나이다. 어느 나라 이든지 그 나라 전체로서의 국민의 건강은 그 나라 발전에 重要한 몫을 차지하며 심하게 말하면 전제 조건이 된다고 하여도 큰 무리는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건강한 국민이어야만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발전에 대한 의욕이 있으며 社會的으로 안정한 상태에 있게 되어 만족스럽고 건전한 삶을 살아 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보 건교육은 이 같은 국민의 건강유지 및 향상에 있어서 現在는 물론이고 將來에 있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그 理由를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1) 오늘의 학생은 내일의 이 나라의 主人公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건강한 국민만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여도 하루 아침에 국민을 건강하게 할 수는 없다. 사람의 건강이란 어떻게 보면 오랜 시간을 보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린 시절부터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인

식과 태도를 형성하여 합리적인 건강행동을 갖게 하여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學生들이 現在는 勿論이고 장래 成人이 되어서도 건강인이 되는데 있어서 學校保健教育은 대단히 중요한 位置를 占하고 있다. 특히 成人은 나면서 부터 成人이 된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成長하고 發達하여 成人이 된다는 點을 고려한다면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할 수 있다.

2) 家庭에서의 擴散期待

어린이는 가정의 꽃이요 어떤 경우에는 成人인 父母의 좋은 教師이기도 하다. 學生들이 學校保健教育期間을 통하여 배운 것을 가정에 돌아와 父母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이 기대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자기들이 배운것과 자기 가정의 관행이나 이웃사람의 습관과 비교하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학교보 건교육의 내용이 학생들의 자연스런 일상생활과 학습활동의 형태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다. 子女教育이 건강과 관련한 成人(父母)의 나쁜 행동의 교정에 영향을 크다는 것을 상기하면 이 點에 대한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한다.

3) 건강한 습관은 어릴 때부터 길러져야 한다.

나쁜 습관은 누구나 빨리 익혀지나 좋은 습관을 갖는다는 오랜 세월이 소요된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에서 잘 알 수 있다. 특히 건강과 직결되는 식생활습관은 더욱 그러하다. 東洋系가 胃腸系의 癌을 많이 앓는 이유로 짜고 맵고 신 음식을 취하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식생활습관은 어린시절부터 시작되어 일생을 두고 잘 변경되지 않는 것 같다. 아무리 머리로는 짠 음식을 먹어서는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짠 음식을 선호하는 것은 어린시절의 습관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다.

학교보 건교육은 아직 굳어버리지 않았을 때 건강에 대한 올바른, 바람직한 습관을 학생들에게 형성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4) 건강은 질병의 治療로 보다다는 豫防으로 더욱 증진된다.

사람은 질병에 걸리면 이를 치료하여 회복되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따르게 마련이다. 경제적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적 고통, 불안, 긴장 등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原狀回復이 안되고 영구적인 不具狀態에 머무는 불행이 있기도 하다.

따라서 건강은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증진을 통하여서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이 질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고 더욱 건강을 증진하게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 보건교육이다. 학교보건교육은 現在는 물론 將來에도 學生들로 하여금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보다 증진하는데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해 주고 바른 태도를 형성토록 자극하여 이를 기초로 합리적 건강행동을 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현재의 질병양상 때문이다.

지금은 전염성 질병이나 감염성 질병은 상당히 줄어들고 성인이 되면서 생기는 비전염성 질병 속칭 “성인병”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앓고 있는 환자수(유병율)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면 심장병, 고혈압, 당뇨병, 암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질병의 근본적 원인은 환자와 그 가족 그리고 넓게는 그 사회구성원의 삶의 양식(life-style)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西洋人에게 심장병이 많고 東洋人에게 위장계통의 암이 많은 것을 說明함에 있어서 그들의 生活樣式的 차이란 점이 대단히 중요하다.

문화인류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양식이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형성되었고 이 생활양식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도 오랜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의 경험이 잘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成人과 어린이를 놓고 생각할 때 생활양식의 변화는 어린이에게서 보다 빨리 오는 것은

물론이고 그 지속성도 어린이쪽이 크다는 것도 역시 부인할 수 없다. 이같은 점을 고려해 볼 때도 성인을 대상으로 한 보건교육보다는 학교보건교육이 효과가 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視點에서도 學校保健教育의 必要性은 강조될 수 있다.

6) 인간이 만들어 내는 건강위해의 심각성 때문이다.

맑은 물, 신선한 공기로 대변되는 자연환경은 인간의 삶의 터전이요, 필수적 요건이다. 그러나 근대 산업사회에서는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더욱 풍요하게 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各種의 文明의 이기들과 이것을 活用하는 인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因하여 하루가 다르게 맑은 물과 신선한 공기를 잃어가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인간이 누리는 풍요한 生活의 結果로 생기는 각종 쓰레기며 인간 배설물은 이러한 환경오염을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인간이 기근을 면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수확을 더욱 많이 하기 위하여 농작물에 뿌리는 살충, 살균제와 제초제는 식량증산이란 목적을 달성시켜 주고 있으나 그 반대급부로 수확된 농작물에 축적된 농약속의 중금속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오는 인간이 만들어 낸 건강위해의 심각성과 그에 대응할 인간의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은 “人類的 生存”이란 次元에서 그 當爲性이 높다고 할 수 있다.

4. 提言

우리는 앞에서 우리나라 靑少年의 건강상의 문제가 무엇이며 그 심각성이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 보았으며 이에 대응하여 學校에서의 保健教育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서 학교보건교육이 왜 必要한가를 생각하여 보았다.

이들을 요약하면 학교보건교육은 교육법에 명시된 학교교육의 목적달성에 없어서는 안될 과정임에도 現行의 학교보건교육은 여러가지로 개선의 여지

가 있다고 말하였다.

現行의 학교보건교육의 效果를 보다 높이고 所期의 成果를 얻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이 물음에 대하여 몇가지 提言을 하고자 한다.

1) 學校에 있어서의 保健教育의 強化

현재와 같이 여러 科目에 分散되어 있는 教科課程을 가지고는 體系의 으로 保健教育을 가르칠 수 없고 또한 教育目標 達成도 어렵다. 保健教育을 強化하기 위하여는 보다 근본적인 우리나라 教育界의 意志와 이에 따른 政策樹立이 요구된다. 各 科目에 學年別로 分散되어 있는 保健教育의 內容을 발취하여 學年別로 알맞은 제목과 수준으로 재조정하는 작업은 결코 용의한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2000年代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 保健教育의 重要性을 감안할 때 이러한 작업은 政策的인 見地에서 빠른 時日內에 着手되어야 하며 文教部內에 各科目의 保健教育內容을 調整하고 科目間 協助를 할 수 있는 職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작업이 더 發展하면 保健教育科目을 單一化하여 獨立시키는 可能性까지도 모색해 볼만 하다.

2) 保健教育目標의 再確認

保健教育의 目標은 學生들에게 保健에 대한 知識을 傳達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그들의 保健에 대한 態도와 行動變化에 그 目標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保健教育은 知識習得을 위주로 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效果있는 保健教育을 위하여 行動變化 指向의 目標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이에 알맞은 保健教育의 改編이 要求된다.

3) 教師에 대한 補充教育의 強化

學校保健教育에 있어서 養護教師는 保健專門職으로서 重要한 역할을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重要한 과제를 養護教師의 責任에만 의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安易한 생각이다. 學校內의 모든 教師는 保健教育에 대한 올바른 知識과 態도를 가지고 자기가 가르치는 科目에서 保健에 관한 內容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들 대부분의 教師들은 保健教育에 대한 訓練을 받을 機會가 없었으며 따라서 이들에게 지나친 期待를 가지는 것은 無理이다. 各級 教師養成 機關에서는 모든 將來教師들에게 保健教育의 基本을 배울 수 있는 機會가 마련되어야 하며 現 敎職에 있는 동안은 수시로 세미나나 워크숍을 통하여 保健教育의 새로운 知識과 知見을 얻을 수 있는 補充教育의 機會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學校保健教育 專門/專擔教師의 養成.

保健教育은 특별한 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專門分野이다. 이미 여러 先進國에서는 保健教育이 專門職으로 認定되고 있으며 이들이 教育大學, 師範大學 또는 保健大學院 등의 正規課程을 거쳐서 教育養成 輩出되고 있다. 長期的인 關点에서 볼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들 專門家의 養成이 이루어 지어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서 우리나라 學校保健教育에 있어서의 劃期的인 發展을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5) 學校保健教育資料의 開發 및 支援

學校保健教育의 效果의인 실친을 위하여는 각종 교육자료의 뒷바침이 필요한데 이들 각종 교육자료의 제작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그리고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따라서 學校마다 이를 단독으로 제작, 보관 사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學校數와 學生數를 감안하여 全國을 몇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마다 學校保健教育에 필요한 각종 教材와 資料를 製作, 保管, 管理하는 教材銀行 같은 것을 설치하는 일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中央에는 教育資料를 제작하는 專門機關이나 研究所를 설치하거나 기존 機關을 活用하여 이들 機能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養護教師制度의 活性化

現在 各級 學校의 保健事業 및 保健教育의 主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養護教師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많은 學校에 養護教師가 配置되어 있지 못하여 따라서 이들 學校에 있어서 學校保健事業이나 保健教育은 거의 이루어지고 있

지 않음이 실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곁들여 保健에 대한 豫算 不足, 教材의 不足, 當局의 無關心 등은 사태를 더욱 惡化시키고 있다. 오늘날 入試制度에 밀리어 거의 不在狀態에 있다고 생각되는 學校保健 또는 保健教育이 未來의 國民保健向上 나아가서는 國民福祉向上이라는 큰 名分下에 제자리를 찾기 위하여서도 현행 養護教師制度에 대한 재평가와 더불어 그 活性化方案이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겠다.

5. 結論

이제 2년을 지나면 2000年代에 접어 든다. “2000년까지에 모든 사람을 健康하게”라는 目標아래 지금 全世界는 그 目標達成에 總力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모든 國民에게 健康한 삶을 약속하는 唯一한 길은 젊은 世代에 어릴 때부터 올바른 健康에 대한 지식과 태도와 행동을 갖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이는 어떤 一部の 책임만은 아니다. 政府와 學校와 家庭을 포함하는 우리 社會 全體가 하나가 되어 그 重要性을 共感하고 그 改善을 위한 일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할 때만이 가능하다. 健康은 우리들의 삶에서 무엇보다도 귀중하다. 이를 지키고 향상시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義務일 것이다.